광양시 공공체육시설 공모 선정 사업비 24억 원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12억 원 지원받아 체육인프라 구축 매진

광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노후시설은 30%, 긴급시설과 우레탄시설은 각각 50%씩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사업으로는 '광양수영장 지붕교체 정비사업'으로 9억 원(긴급), '축구전용구장 우레탄 개보수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우레탄), '광양시립정구장 정비(노후)사업'으로 6천3백만 원 등이다.

그동안 시는 이번 공공체육시설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광양수영장 안전진단용역과 축구장 우레탄 트랙과 시립정구장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를 각각 방문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로 맞춤형 체육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거점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한 발짝 다가갈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개보수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 같다"며 "앞으로도 체육인프라 구축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옥곡면, '백운산국사봉 철쭉축제' 맞이 환경정비

지역민 · 봉사단체 등 80여 참여 등산로 나무심기와 잡목제거

광양시 옥곡면은 '제13회 백운산국사봉 철쭉축제'를 앞두고 최근 축제준비를 위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축제 추진위원회원 30명, 광사모 봉사단, 옥곡면이장협의회와 옥곡면 공무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갑작스런 눈보라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역민들과 자원봉사단체에서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석자들은 국사봉 랜드에서 시작되는 등산로에 단풍나무 100주를 식재하고, 퇴비를 살포했으며, 철쭉군락지에 있는 넝쿨과 잡목을 제거했다.

또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잡목제거와 등산로 벤치, 의자 등 페인트 도색작업을 실시해 보다 편리하게 등산을 즐기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연길 백운산국사봉 철쭉축제 추진위원장은 "오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민과 힘을 모아 백운산국사봉 철쭉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면민광장과 국사봉 일원에서 아름다운 철쭉과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구석구석 순천여행 홍보 모니터단' 활동 시작

2019 순천 방문의 해 홍보 및 읍면동 관광자원 발굴

순천시는 구석구석 순천여행 홍보 모니터단 21명을 최근 위촉하고 읍면동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홍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순천여행 홍보 모니터단은 24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관광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읍면동의 관광자원, 숨은 맛집, 마을축제, 체험마을 등을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크숍에서 읍면동별 관광자원을 리스트화 하고 이를 활용한 홍보물 디자인과 홍보 기법 등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승현 관광진흥과장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국내외에 알려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해 90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5년, 10년 후를 대비하여 랜드마크 마케팅이 아닌 마인드마크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구석구석 순천여행 홍보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을 '순천 방문의 해'로 지난 2월 선언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 된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생태관광 거점도시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4월중 BI를 개발하고, 8월중에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 주암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앞장서다

순천시 주암면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는 2018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암면 주민들은 다양한 마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며 자치분권의 토대를 만들어 왔다.

주암면에서 기울인 노력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공모사업에 주암면 궁각마을이 '친환경 유기농생태마을'로 최종 선정되며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아 친환경자재생산시설, 유기농산물 체험?전시 판매장 등을 건립하여 마을의 기반을 다지고 소득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천시에서 공모하는 순천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운룡마을이 선정되어 마을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 부분에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용오름마을로 잘 알려진 운룡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과 관광객, 체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이 있는 숲속카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성마을, 주암마을 등 주암면 내 각 마을들이 다양한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17일 배신제 봉행

나주 배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나주시 '배신제' 봉행 행사가 나주 배 원예농협 주관으로 17일, 나주 배 박물관 배신제단에서 거행됐다.

나주시 관내 배 재배농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남평향교의 제식 진행으로 제관천정 및 분정에 초헌관은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이, 아헌관과 종헌관은 김판근 시의회의장과, 배민호 조합장이 각각 맡아 의식을 치렀다.

또 지난해에 이어, 한글홀기에 의한 전통 제향 방식으로 참례자가 봉행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농업관련 단체장, 배 재배농가, 시민, 공무원 등 초청 범위를 확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참례 기회를 제공했다.

화순군, 학교급식 친환경 먹거리 공급 '온힘'

18억원 들여 110개교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화순군은 18억여 원을 들여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이 서울시 등 타 지역 학교 및 공공급식시설 306곳에 1,106톤 규모로 다량 공급되면서 채소, 과일 등 급식 식재료도 함께 공급되는 등 친환경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군은 성장기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내 농산물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 농산물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조달해 공급한다.

특히 2017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인증쌀이 전면 관내 학교 급식에 공급되면서 유기농쌀 재배 농가 수익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또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체결해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8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65곳, 유치원 19곳,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10개교 9,199명이다.

식재료 지원 사업비는 군비 13억 3백만원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매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관내학교와 공공급식 110곳에 공급하기 위해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매년 2월에 열어 공모 선정된 공급 주체를 선정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및 현금·현물지원 기준 등을 심의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별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검사와 연중 친환경 인증농산물 작목별 토양검정검사를 수시로 추진해오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1,137ha로 군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확대를 위해 타부서와 적극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